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경청하는 귀가 성공하게 한다

경청(傾聽)이란 상대가 하는 말을 집중해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한다. 공자는 '말하는 데 3년 걸리지만, 듣는 법을 터득한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했다. '경청'이라는 책이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것만 봐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지 알 수 있다. 데일 카네기의名著 '인생론 10부작' 인간관계론을 좋게 하는 비결이 '경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아들 이맹희, 이창희, 이건희 삼형제에 대한 일화가 있다. 병석에 누운 이병철 회장에게 기자가 질문했다. '왜 3남인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지명하셨나요?' 기자의 질문에 이병철 회장은 짧게 대답했다. "건희는 <듣는 귀>가 있어서!"

3남인 이건희 회장이 장남과 차남을 제치고 삼성의 후계자가 된 이유가 그것 한 가지뿐인 건 아니겠지만,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아버지 이병철 회장에게 인정받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가정, 학교도 마찬가지다. 아내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유능한 남편이고,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아내가 현명한 아내다. 상대가 하는 말에 경청하면 상대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데 보람을 느끼며 친숙해진다. 그래서 초면의 사람에게서는 그가 말을 하게 하고 끝까지 들어 주는 것이라 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강의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 배우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문제와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을 배양하는 필수 과정이다. 평화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한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보다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진정한 대화의 능력이고 삶의 기술이다. 조물주가 귀를 두 개 만드셨고 입을 하나 만드신 이유도 두 배로 듣고 절반만 말하라는 뜻이라고 여겨진다.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보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짓기로 돼 있는데 듣기 지도 과정에서 학년 단계별로 경청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에 대한 지도에 소홀함이 없이 지도해야 하며, 특히 말을 들을 때는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경청하게 해야 한다.

대인 관계에서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한다. 그러므로 성공하려면 겸손하게 상대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삼성 그룹 이건희 회장의 좌우명은 경청이었다.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항상 겸손하고 귀를 기울여 작은 소리도 들어주는 아량을 베풀었다. 불만은 작은 소리에도 있고 큰 소리에도 있으므로 경청해 욕구불만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간파해 지도하는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민선 단체장은 당선만

되면 비서실이나 대변인실에 시민 자연인들의 접근을 엄격히 규제하며 벽을 쌓고 있다. 선거 때 겸손과 경청은 사라지고 권위주의적 권좌를 누리고 있는 느낌이 들게 한다.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인데 단체장이 자기의 주변에 인맥의 담을 쌓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정보에 늦어진다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내다보인다. 필자는 제8기 단체장 취임 후 단체장에게 전할 정보가 있어 비서실이나 대변인실을 통해 만나려 해도 여까지 핑계를 대서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단체장의 면담은 생각도 못 한다. 이것이 민선 8기 단체장들의 변화된 모습의 소통 행태이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신체 각 부분이 노쇠해지는데 청력이 떨어져 듣지 못하는 것은 보청기가 등장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난청자를 위해 청력 장애자가 보청기를 구입하는 데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난청자는 청력검사를 해 장애 판정을 받으면 정부 지원으로 보청기를 구입 해 착용해 인간관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만, 경청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귀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청할 수 있는 두 귀를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경청하는 귀가 나를 성공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경청을 실천해야 한다.

독자기고

주유소에서 태우는 담배, 이래도 태우시겠습니까?

박철우 원도소방서 소방교

'실마가 사람 잡는다' 이 말은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사용하는 속담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속담은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과 잘 들어 맞는 말이며, 이를 '안전불감증'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부터 위험상황을 빨리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웠던 세월호 침몰 사고, 이태원 압사 사고까지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고이며,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사람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줄일 수 있었던 사고들이며 즉, 인재(人災), 안전불감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큰 사고들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안전 불감증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셀프주유소에서 자신의 차에 주유를 하던 한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전파되는 일이 있었다.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떠다니는 곳이며, 그 유증기가 담뱃불 등 작은 불씨와 맞닿으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주유소 화재는 여전히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로, 여러 화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주유소

내 흡연이며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단순히 흡연자 한 사람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함께 주유소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유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인 것이다. 현재 주유취급소 내 흡연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며, 해당 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6항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항이다.

우리는 항상 해 오던 일, 행동이 익숙하다보니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을 무시하다가 발생하지 않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재난을 크게 키우는 경우가 반복됐었다.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는 개인의 기호로 볼 수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 처벌기준을 알고, 적어도 주유취급소, 금연구역에서는 잠시만 참고 안전한 장소,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당연한 일들을 당연하게 지킴으로써 위험에 무감각한 대한민국이 아닌, 안전에 예민한, 안전이 당연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본다.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기영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부사장	기백관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피브로알로에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